

부동산개발자금(PF) 대출 전문은행  
**동양저축은행**  
 [082]228-0180

# 光州日報

www.kwangju.co.kr  
 "당신의 결혼을 응원합니다"  
 VIP No.1 결혼정보회사 - 마스클럽

## 여야, 본격 선거전 돌입

### 5·31지방선거 D-30

앞으로 4년동안 풀뿌리 지방자치체 이끌어갈 선량을 뽑는 제4회 동시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전이 사실상 막을 올렸다. 선거운동이 본격 개시되는 공식 후보 등록(16~17일)까지는 2주 이상 남아있지만 각 정당과 후보자들은 막바지 공천과 선거캠프 구축 및 전략 구상 등에 속도를 내면서 '열전 30일'에 돌입했다.

### 독주하던 민주당 공천 파동으로 '주춤' 무소속 난립 광주지역 우리-민주 팽팽

광주·전남의 경우 이번 선거에서 양 시·도지사를 비롯 시장·군수·구청장 27명, 광역의원 70명(광주 19, 전남 51), 기초의원 311명(광주 68, 전남 243명) 등 모두 410명을 선출하게 된다.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 등으로 경쟁률은 과거보다 높아졌다. 이번 선거는 특히 각 정당의 내년 대선 전략과 맞물리면서 어느 때보다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며, 호남 선거 결과는 향후 정계 지각변동의 핵으로

부상할 수 있어 여야간 건곤일척의 사투가 불가피해 보인다. <관련기사 3·4·5·8면>  
 ◇판세 분석=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이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광주·전남의 선거 판세는 당초 민주당의 독주가 예상됐으나 최근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공천 파동과 조재환 사무총장의 자금 수수 등으로 표심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지난 3월까지만 해도 광주·전남지역 판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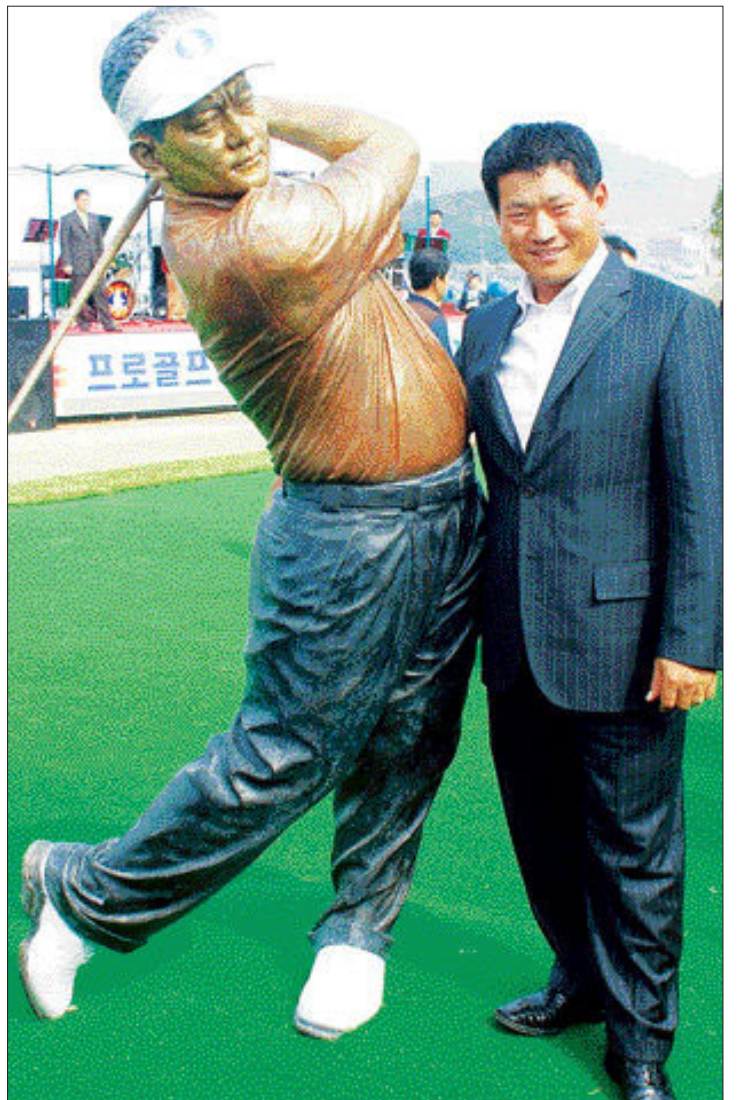
는 8대 2 정도로 민주당이 압도적 우세를 보였다. 하지만 현재는 6대 4 정도로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이 팽팽히 맞서는 흐름이다. 민주당이 우세인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선거전을 제외하고는 양 당 후보들이 접전을 펼치고 있다. 광주 기초단체장은 민주당과 우리당 후보들이 반분할 가능성이 높다. 전남은 민주당 우세가 유지되고 있으나 기초단체장 확보 비율은 현재 구도와 비슷한 민주당 50%, 열린우리당 30%, 무소속 20% 등으로 접쳐진다. 1일 현재까지 민주당은 광주·전남 27개 시·군·구 모두 단체장 후보를 확정했고, 열린우리당은 20곳에 후보를 공천했다. <각 당 선거전략>=열린우리당은 1997년 대선의 수평적 여야 정권교체, 17대 총선의 의회권력 교체에 이어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지방권력의 교체를 이뤄낸다는 목표다. 민주당 공천 파동으로 인한 무소속 후보 난립이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라는 판단 아래 광주는 우리당 우세, 전남은 민주당과

있다는 것이 자체 진단이다. 민주당은 충분한 반전의 기회가 있다는 판단 아래 뒷받침인 광주·전남에서는 확실한 승리를 이끌어내겠다는 각오다. 약재가 겹쳤음에도 우리당 지지율이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지 않아 아직까지 지역 표심이 민주당에 남아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광주·전남 7곳에 기초단체장 후보를 낸 민주노동당은 현재 12~15% 수준인 지지율을 20%대까지 끌어올려 새로운 정책 대안 정당으로 자리매김한다는 전략이다. 전남 6곳에 기초단체장 후보를 공천한 한나라당은 3~5%대에 머물고 있는 지지도를 두 자릿수로 끌어올려 전국 정당으로 발돋움하고 대선 승리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오는 16~17일 후보자 등록을 거친 뒤 18일부터 30일까지 13일간의 법정 선거운동에 들어간다. 부재자 투표는 25일부터 이를 간 실시된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완도 출신 세계적 골퍼 최경주 단독 인터뷰 > 관련기사 22면

### “어려운 이웃 ‘빈잔’ 채워주고파”

“나머지 설움은, 나의 빈 잔에 채워주세요~”  
 지난달 29일 고향 완도를 방문한 세계적인 골퍼 '탱크' 최경주는 500여 명의 완도 고향민들 앞에서 남진의 '빈잔'을 멋들어지게 불러줬었다. 완도군이 완도를 승격 60주년 기념식과 겸해 마련한 자신과 똑 닮은 최경주 조형물 제막식 자리에서다. 최경주는 이날 자신의 18번 노래는 '빈잔'이라고 했다. 리듬보다도 빈 잔의 노랫말 때문이라 한다.



최경주가 지난달 29일 완도에서 열린 자신의 동상제막식에 참석한 뒤 동상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완도=최현배기자 choi@

### “메이저 4개 대회 우승 꿈 이루려 해 뜨면 골프채 잡고 해지면 놓는다”

자신이 골퍼를 이 악물고 악바리처럼 치는 이유는 먼저 자신의 빈 잔을 채우기 위해서고 다음은 다른 어려운 사람의 빈 잔을 채우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어려운 사람들, 아픈 사람들의 빈 잔을 채워주고 싶어 더욱 열심히 골퍼 연습에 매달리고 있다고 했다. PGA 생활이 힘들 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빈잔을 생각하면 더욱 힘이 난다고 했다. 그래서 최경주에게는 '기부왕'이라는 별명도 붙었다. 최경주는 올 1월 완도군에 장학금 2천만원을 기탁했고 이날도 볼우 청소년 5명에게 각각 100만 원씩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미국 진출 전인 지난 97년부터 어려운 곳에 기부한 돈만 2억 원이 넘는다. 최경주는 앞으로도 수많은 빈잔(어려운 이웃들)을 가득 채우기 위해 더욱 열심히 골퍼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최경주와 일문일답. <고향에 온 소감> -그동안 고향을 몇 번 방문했는데 이번 방문은 더욱 뜻깊다. 고향 완도에 제 동상이 세워진 것을 보니 그동안 고생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전남도민이자 완도민인 것이 자랑스럽다. <지난 시즌에 비해 올 시즌 기술적으로 보완점 점이 있다면> -소프트 게임이 좋아졌다. 아이언 샷과 드라이버 샷도 정확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2면에 계속> /완도=박진표·정은조 기자 lucky@

## 당·청, 사학법 재개정 갈등

### 與 '노대통령 양보 권고' 거부

사학법 재개정 여부를 둘러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사이의 양보없는 대치가 노무현 대통령의 '중재노력'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않아 정국경색이 심화될 조짐이다. 우리당은 노 대통령이 사립학교법 재개정 협상과 관련해 '여당의 대승적 양보'를 권고한 데 대해 거부사를 분명히 하면서 부동산입법 등 민생법안을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처리

하겠다는 강경입장을 밝혔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은 우리당이 노 대통령의 권고를 거부한 것은 집권여당의 책무와 국정현안 처리를 포기한 처사라고 비난하고 사학법 재개정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다른 법안 처리와 5월 국회를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3면> 여당과 제 1야당이 5·31 지방선거를 한달 앞두고 가뜰이나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사학법 재개정' 문제까지 겹치면서 정국의 긴장도는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당 정동영 의장은 30일 인천에서 열린 최기선 인천시장 후보 임당식 및 필승결의대회에 참석, "지도부는 의원 절대 다수의 뜻을 모아 부동산 입법은 입법대로 모든 협상력과 동원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해서 노력하고 동시에 사학법은 사학법대로 지켜간다는 결의를 다졌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는 이날 열창동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이 마련한 사학법 재개정안은 타협할 수 없는 최종안이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른 법안 통과를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변호사 개업인사**  
 저학들은 함께 법사무소를 개설하고 변호사 사무를 시작하였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조영수·김은철** 취임  
 ■변호사 조영수(曹永洙)  
 서울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학사 졸업, 서울대 보건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서울중대 최고산업경영자과정  
 ■변호사 김은철(金恩徹)  
 전남대사범부속고등학교,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개업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02호  
 ■대표전화: (02) 635-7100  
 ■입주기간: 4월 13일  
 ■개업시간: 5월 11일(목) 오후 6시부터

**물가 36년 정보의 메카**  
 SINCE 1970  
**국내 최고의 물가전문지**  
 綜合物價情報  
 http://www.kpi.or.kr  
 112-977-7300 FAX: 112-977-2002

**제 51회 호남예술제 미술·작문·논술 공모**  
 접수기간: 4월 25일 ~ 5월 25일까지  
 ▶http://www.kwangju.co.kr ▶☎: (062)220-0541, 222-0111

**1,000만 오토후 운전지님!**  
**후보요금 기쁨은 배고 타십니까?**

**3년 무제한 무사고**  
 \*무사고 3년 이상  
 \*무사고 3년 이상  
 \*무사고 3년 이상

**54**  
**오토車 6.3%에**  
**최대 38.6%까지 할인!!**

대한민국 보험회사의 기본,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보험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보험료 할인 혜택**

- 1. 무사고 할인
- 2. 무사고 할인
- 3. 무사고 할인
- 4. 무사고 할인
- 5. 무사고 할인
- 6. 무사고 할인
- 7. 무사고 할인
- 8. 무사고 할인
- 9. 무사고 할인
- 10. 무사고 할인

**보험금 지급**

보험금 지급